



제20회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0회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2011.12.1 (목) p.m.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에듀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교육대학교

## | 축 사 |

Greeting



백찬 꿈과 희망으로 바쁘게 달려왔던 신묘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보람과 아쉬움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희망과 계획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을 맞아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 20회 정기연주회가 열리게 된 것을 한새 가족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바빠지는 교육 현장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기량을 닦아 20회에 이르는 의미 깊은 연주회를 갖게 된 선생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것이며, 그 감동이 존경과 신뢰의 모습으로 다시 선생님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를 거듭해 가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수준 높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들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음악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요즘, 음악을 통해 사제지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좋은 계기가 에듀필 하모닉을 통해 실현되길 바랍니다.

가슴 한편에 묻어둔 따뜻한 감성과 추억이 되살아나는 초겨울 저녁, 함께한 모든 이들이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마음의 여유와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궁한 발전과 연주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김 상 용**

## | 프로필 |

Profile



지휘 **김 지 세**

전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전 / 부산신포니에타 단원

전 / 부산현악사중주 단원

현 / 부산 소년소녀현악합주단 지휘자

에듀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교육대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



첼로 **박 준 현**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졸업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단원.

99년도 부산교육청콩쿠르 실내악부문 1위

99년도 부산음협콩쿠르 실내악부문 1위 없는 2위

07년도 부산음협콩쿠르 실내악부문 1위

07년도 부산음연콩쿠르 개인부문 2위

09년 3월~7월 진주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09년 7월~11년 6월 부산 YMCA NEO 필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 프로그램 |

## Program



### Guitar Concerto No.1 in A Major Op.30 - 1. Allegro maestoso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1번 가장조) mauro giuliani

마우로 줄리아니(1781~1829)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었으며 19세기 뛰어난 기타 연주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음악적 행로는 원래 첼로에서 출발하였으나, 바이올린도 배웠으며 특히 기타에 흥미를 느껴 거의 독학으로 높은 수준까지 공부하였다. 그는 1800년에 유럽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이후의 음악적 활동으로 베토벤을 비롯한 동시대 음악인들로부터 상당한 찬사를 받게 된다, 또 200개에 달하는 기타곡을 작곡하여 이 악기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3개의 기타협주곡 중에서 제 1번인 이 곡은 1808년 빈에서 초연되자마자 성공을 거두었다. 이 협주곡에서는 특히 1악장(Allegro maestoso: 빠르고 장엄하게)과 3악장에서 이탈리아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다.

### Oblivion (망각) Astor Piazzolla

아스트로 피아졸라(Astor Piazzolla, 1921~1992)는 195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에서 대중음악에 일대 변화를 가져 오면서 전 세계에 탱고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새로운 탱고(New Tango)라는 뜻으로 누에보 탱고(Nuevo Tango)라 지칭하여 "탱고의 황제"로 예찬 받던 작곡가이자 훌륭한 반도네온(Bandoneon) 연주자이다. 반도네온은 아르헨티나식 아코디언(Accordion)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아노 같은 건반이 있는 아코디언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 Oblivion(망각)은 누에보 탱고의 대표적인 곡으로 1984년 이탈리아의 마르코 벨로치오(Marco Bellocchio) 감독이 제작한 영화 "엔리코 4세(Enrico IV)"를 위해 작곡 연주된 음악으로, 특히 기돈 크레머(Gidon Kremer)와 리차드 갈리아노(Richard Galliano)의 명연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피아졸라(Piazzolla)의 대표곡중 하나이다.

### Intermezzo Sinfonico From the Opera "Cavalleria Rusticana" (오페라 '카발렐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Pietro Mascagni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Cavalleria Rusticana"의 간주곡으로 Cavalleria Rusticana는 '시골의 기사도(騎士道)'라는 뜻이다. G.베르가 소설을 제재로 T.토제티와 G.메나시가 합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이 작품은 현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른바 베리스모(진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마스카니 자신의 출세작이기도 하다. 1890년 5월 17일 로마의 콘스탄치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무대는 시칠리아섬의 어느 촌락, 투리두는 애인 롤라를 남겨놓고 입대한다. 제대하고 돌아와보니 그녀는 마부 알피오의 아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처녀 산투차를 가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롤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이를 알고 화가 난 알피오가 결투를 하여 투리두를 살해한다는 연애비극이다. 이 오페라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투리두의 <시칠리아노>, 산투차의 아리아 <엄마도 알다시피>와 간주곡 등이 유명하다.

### Brandenburg Concerto Nos 4 for two flutes and strings in G major BWV 1049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J. S. Bach

1. Allegro 2. Andante 3. Presto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가들이 '교향곡'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야심을 펼쳤다면, 17·18세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들은 '협주곡'으로 작곡 기법을 시험했다. 아마도 협주곡으로 가장 명성을 얻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는 500여 곡의 훌륭한 협주곡을 남긴 안토니오 비발디일 것이다. 하지만 협주곡의 대가 비발디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 구현해낸 음향의 다양성을 따르지는 못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가 남긴 협주곡들 가운데서 최대 걸작일 뿐 아니라 '합주협주곡'이란 유형으로 분류되는 협주곡 가운데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작품으로 평가된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가 1718년에서 1721년에 걸쳐 궁정악단을 위해 쓴 6곡의 합주협주곡으로, 브란덴부르크의 루트비히 경에게 헌정한 곡이다. 그 중 제4번(BWV 1049)은 독주 파트를 맡은 플루트의 아름다운 소리와 바이올린의 우아한 음색이 현악 합주와 잘 조화를 이룬다. 특히 1악장의 독주 바이올린의 기교가 매우 화려해 종종 플루트를 압도하기도 한다.

### Cantata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BWV 147-6. "Jesu, Joy of Man's Desiring"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시여) J. S. Bach

이곡은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중 6번째 곡으로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곡이다. 칸타타(Cantata)란 성악곡의 하나로, 악기 반주가 동반되는 악곡의 형식을 말한다. 어원적으로는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하며 '악기로 연주한다.'는 뜻의 '소나타'와 대비를 이루는 악곡 형식이라 할 수 있겠다. 바흐는 바이마르에 체류하던 1716년, 독일의 시인이자 칸타타 작사자이기도 했던 살로모 프랭크의 가사에 곡을 달아 예수강림절에 부를 칸타타를 작곡하였다. 1723년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로 옮기게 된 바흐는 그해 성모방문축일에 필요한 칸타타를 만들게 되었는데 1716년 만들었던 칸타타를 편곡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 두 번째 칸타타의 제목으로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 따라다니는 것은 칸타타 가사에 포함된 구절로 인함이다. 바흐는 이 곡을 통해 슬픔과 갈망, 확신과 초월, 회개와 소망 그리고 평안과 기쁨 등의 인간이 겪는 많은 감정들을 음악으로 훌륭하게 표현해 내었다.



# | 단원소개 |

## Member Introduction

### 1st Violin



**최미경**  
당평초등학교



**백유정**  
수영초등학교



**김태희**  
성전초등학교



**김소연**  
민안초등학교



**모민영**  
금곡초등학교



**박혜진**  
만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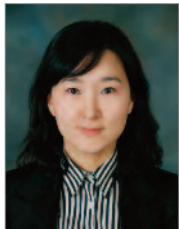


**고서연**  
부산교대음악과



**최미경**  
울산시향

### 2nd Violin



**김지숙**  
토성초등학교



**이해리**  
카머심포니



**임예전**  
양산덕계초등학교



**안병욱**  
엄궁초등학교



**이은혜**  
대연초등학교



**정금자**  
신천초등학교



**정신숙**  
수영초등학교



**조미혜**  
동익대 출강

### Viola



**김성아**  
초읍초등학교



**권영성**  
울산시향



**이미연**



**서경민**  
사동초등학교



**박준현**  
부산대졸



**신현미**  
전포초등학교

### Cello



**김희정**  
김해신명초등학교



**유정미**  
수영초등학교



**박진현**  
죽성초등학교



**이지훈**  
안남초등학교



**김은희**  
사상초등학교



**조한울**  
용산초등학교

### Flute

### Oboe



**강지민**  
동래초등학교



**김수정**  
반산초등학교

### Clarinet



**박진홍**  
동래초등학교



**최병인**  
토성초등학교

### Percussion



**서종우**  
분포초등학교

### Guest

- Violin | 김새해(경성대4), 이희진(경성대4)
- Viola | 박미영(김해필), 하정호(울산시향)
- Cello | 조선일(동익대 대학원), 한주은(동익대 대학원)
- Contra Bass | 김은국(울산시향)
- Hor | 최영희(포항시향), 이유경(BSO)
- Bassoon | 양희경(부산대4), 윤이나(부산대2)

- Trumpet | 황성렬(메트로폴리탄팍스), 최수용(부산시향)
- Trombone | 하호석(울산시향), 이재영(네오필하모니), 김나영(부산대졸)
- Percussion | 김인수
- Piano | 임보라(경성대대학원)
- 태평소 | 신선영(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